

꼭 읽어주세요!

저는 M.Div. 5/6학기 송민혜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학부를 하여 생존하기에 바쁜 20대를 보냈고, 대학원에 입학하여도 2년 동안 학교 내 ‘학생회’라는 조직이 있는지 몰랐던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료의 소개로 장학금 받으려고 학생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듣게 되면서 학내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정치적이지 않은 순전한 학생들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어떤 특정한 교수님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운동에 대해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조금씩 알게 되고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하니 왜 학부 학생들이 ‘단식’까지 강행하는지 이해가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소속을 밝히자면, 저는 1학기 학생회에서 문화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저를 포함한 임원 7명이 학생회장과 뜻을 함께 할 수 없어 학생회를 탈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학내사태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비대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 열심을 내고 있는 친구들을 마음으로 지지하고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이렇게 운동하면 나가서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나?”입니다. 많은 원우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교회 내 의식이 바뀌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13년 이상 사역하면서, 학교에서 교회를 비판하던 목소리만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신뢰조차 얻지 못하는 ‘자칭 운동권 신학생’들도 보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애초부터 알고 싶어하지 않거나 알아도 뒤에서 비판만 하며 잠잠하게 순응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던,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린 많은 조금씩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학내사태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영국교회 조직 안에서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감리교 운동을 했던 웨슬리를 배우고 추앙하면서, 타락한 무소불위 교황과 교회의 권력 앞에서 교회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마틴 루터를 자랑스러워 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가 밟고 서 있는 한 평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눈을 감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고 기성교회에 대한 타락을 비판할 자격에 대해서도 스스로 물어야 하겠죠.

우리, 신학도로서 성도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방법으로 깨어 행동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학교의 아픔 앞에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참여로, 관심으로,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무성한 추측으로 오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두렵고 힘든 일이니 더욱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니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사회 목사님들께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한명의 학생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2일에 있던 이사회에서도 몇 분의 목사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무리한 총장선출을 막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이사장 대행으로 돌아와 8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총장을 뽑아두고 나가려는 무리한 불의를 막아주시시오. 끝까지 불의에 맞서주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얻고 힘들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연히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총장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 송민혜, 김기숙, 김연선, 김동우, 허한나, 최지호, 박근조, 남경모, 이상훈, 김창섭, 김효진, 황민희, 이성실, 이지혜, 이재은, 김순례, 김택민, 이요한, 김병주, 전충혁, 안 현, 김혁, 김창열, 김덕현, 오향록, 박진원, 김홍권, 조혜진, 박정운, 권오균, 추은지, 서경화, 임동철, 정준영, 문희주, 최은철, 박선구, 안슬기, 이지훈, 김준식, 노종구, 유 권, 김미정, 박미희, 김영희, 박승환, 조정연, 박승룡, 김수현, 송민천, 한현수, 김은경, 이대희, 이태호, 김연화, 김용필, 김진오, 정주영, 최병환, 이수일, 예상혁, 최성령, 황지연, 권미연, 정지영, 방준형(졸업생), 김현명, 유일상, 조윤주, 이상평, 김순희, 윤희영, 서은선, 이숙희, 신영철, 한범수, 탁동권, 이교진, 임은아, 김창현, 박진우, 김평화, 이성언, 안동훈, 임옥연, 민아름, 김정일, 윤택한, 이승복, 김하라, 오승명, 김상연, 현병찬(졸업생), 김한샘, 나은호(졸업생), 송성민(졸업생), 김용순(졸업생), 이예은(졸업생), 김현철(졸업생), 손태석(졸업생) 현재까지 100명, 황태웅(졸업생), 박성현(졸업생), 김지현(졸업생), 이정화(졸업생), 최은선(졸업생), 이애경, 강창우(졸업생), 김명현, 김현빈, 김 강, 정승윤, 김관중(졸업생), 강영진(졸업생), 임수현A(졸업생), 신원택, 박용훈, 장현민(졸업생), 정한울, 임수현B(졸업생), 박용훈, 어현재(졸업생), 임승국(졸업생), 남기평, 김태영, 이격호, 김요한, 장근지, 강대호, 엄채린, 김동현, 유기옥(졸업생), 김정은, 김우중(졸업생), 정다희, 문태호(졸업생), 한성수(졸업생), 박진혁(졸업생), 조근원, 윤진호, 이효은, 구은숙(졸업생), 김수남(졸업생), 김선민(대학원), 박신영, 정빈나(졸업생), 김민선, 박재찬(졸업생), 이은영(졸업생), 장하은, 김우중, 한수현(졸업생), 손진현, 신현범(졸업생), 박진성(주간), 박태진, 이종준, 이인빈, 김덕홍, 김진재, 배문수, 천고은, 박다솔, 김지은, 최인기, 이주환, 김서현, 임종섭, 권유라, 권하늘, 조길현(졸업생), 구미정(졸업생), 김주림, 백인혁, 김준기, 최형준, 정인교(졸업생), 박찬기(졸업생), 이찬희, 정수빈, 황선영(졸업생), 이영광, 천고은, 진선규(졸업생), 권지영(졸업생), 윤성민, 박장훈(졸업생), 박진희(졸업생), 김누리(졸업생), 이베텔(졸업생), 김영룡(졸업생), 이예은, 임찬민, 최소영, 박선영, 이재길, 박현주, 박성민, 이가연, 김민규, 이관택, 이효성, 고예은, 박준환, 김지선(졸업생), 한현승, 장의림, 김선민(학부), 김연진(졸업생), 한재윤(졸업생), 이은재, 박창현 (현재 211명)

(함께 기도해주실 분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에 참여하실 분은 010-4518-1678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